

하와이 무량사 싯달타大 설립

올 9월 개교... 불교·동양의학과 등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원)가 4년제 정규대학을 설립한다. 올 9월 개교하는 하와이 싯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 지난해 초 미국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와이 싯달타대학이 들어설 무량사 한인문화원 전경.

무량사 부설 한인문화원 건물에 설립되는 하와이 싯달타대학은 올해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를 개설해 미국 현지인 학생을 위주로 선발한 뒤 한국불교 포교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학원 과정과 학부과정에 동양의학과(한의학)과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대학원에는 한국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선학과도 개설해 4안거를 성만할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싯달타대학은 또 미국에서 동양학부문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하와이주립대학과 학점교환 등의 교류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올 여름부터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여학연수 프로그램(디렉터 김민선,

하와이대학 스피치 디파트먼트 커뮤케이션 교수도 개설해 한국 불자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20박 21일 단기 여학연수 겸 문화캠프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2) 722-4162

하와이 싯달타대학이 들어설 무량사 한인문화원은 건평 3천5백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한국전통 사찰 양식으로 건립됐다. 문화원 건물에는 10여개의 강의실과 다실 등 전통문화센터, 강당, 선방, 법당, 세미나장, 기숙사, 식당이 갖춰져 있다.

주지 도원 스님은 "미국 전역에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학을 설립하게 됐다"며 "다도 등 현지인들을 위한 강좌도 다양하게 개설해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정기 바자회 성황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식품, 의류, 화분 등 30여종의 생활용품들이 전시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이 3월 19~21일 안양분원에서 연등축제 및 불우

자비실천, 이라크서 구호사업

키르쿠크 주민대표와 합의서 체결

재단법인 자비실천(이사장 도원)이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들과 이라크 내 구호사업과 봉사활동 합의서를 3월 18일 체결했다.

신라호텔 마로니에홀에서 진행된 합의의 조인식은 이사장 도원 스님을 비롯, 자비실천본부 관계자들과 바그다드대 레파트 교수, 아랍족 오베디가문 지도자 씨미 알라라 등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의서에 따라 자비실천은 이라크 재건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봉사활동, 구호품 지급, 주택건축사업 등 각종 구호사업과 봉사활동, 재건사업 등을 이라크 현지에서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오는 4월 파견되는 자이툰부대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안전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도원 스님은 "이번 합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작은 시도"라며 "이라크 키르쿠크지역 내 전쟁 이재민들과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레파트 교수는 "한국 활동에 기대가 크다"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키르쿠크 주민대표 8명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 실질적인 지원방법과 파병 규모·역할 등에 대한 좌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은경 기자

고려대장경연구 10주년 기념식

4월 1일 달마사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장림·이하 연구소)가 4월 1일 서울 달마사(주지 미명)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산화본 고려대장경을 부처님 전에 봉안하고, 새로운 보급자리 건립을 선언할 계획이다.

전산화본 고려대장경은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전산화본 1514종의 고려대장경을 총 108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날 봉안을 위해 새로 제작

파키스탄 탁실라 사원서 유적 발굴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 불상 등 다수

무불상(無佛像) 시대 이후 불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간다라 지역에 한국 발굴팀에 의해 불교유물이 발굴됐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한국불교미술사학회)은 지난 2월 파키스탄 탁실라 조율리안(Jouliyan) II 사원지에서 불두(佛頭) 1점, 불신(佛身) 4점, 얼굴모양 토기식탈 파편 1점 등 유물을 발굴했다.

이번에 출토된 불두는 길이 19cm, 폭 12cm 크기로 가늘한 얼굴에 신비로운 눈, 옅푸른 코 등 전형적인 그리스계 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두는 굽타 시대 이전 유물로 삼국시대 불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이번 발굴조사의 최대 성과로 불두 발굴을 들며 "조율리안 I 사지에서 출토된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두도 삼국시대 초기 불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간다라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얼굴모양 토기식 탈은 사원이 그려진 굽타 눈썹과 동그란 눈, 이마의 특이한 무늬 등이 기하학적으로 표현돼 있다. 이 탈은 서역인으로 알려져 있는 신라시대 처음(處尊) 탈과 비교할 수 있어 간다라 문화 수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다라 지역에서도 처음 출토된 것이어서 파키스탄 고고학 물관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후문이다. 또 함께 발견된 등잔은 사원의 벽을 파고 그 속에 불상 등을 넣어두던 벽감(壁龕) 속에서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출토됐다.

이번 1차 발굴에서는 조율리안 II 사원지 탐 벽면에 두껍게 회를 바른 후, 붉은 색으로 채색한 흔적이 남아 있어 2005년도에 실시할 2차 발굴에서 채색벽화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오유진 기자

불교상담대 4월 1일 개강 상담 전문인력 확보위해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은 불교상담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기관인 '불교상담대학'을 4월 1일 개강한다. 부설 자비의 전하에서 해오던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교상담대학'으로 확대 개편했다.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전 문과정으로 나뉘며 기본과정은 4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청각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3월 27일까지.

상담개발원은 이와 함께 불교상담 전문인력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칭) '불교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한국능률협회의 민간자격 등록을 마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인인증 내 특수교사 자격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abi24.org)를 참고하거나 전화 (02)737-8803.

권형진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 파라미터 4월 27일까지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7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불교종립학교 재학생, 파라미터 청소년회원을 비롯한 일반 청소년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파라미터에서 제작한 사경지에 사경해 4월 27일까지 파라미터로 보내면 된다. 우수 사경에게는 총무원장상과 파라미터 총재상 등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여된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장기기증 신청 4만925명·장기이식 484건

자비 씨앗 뿌리기 10년 결실

31일, 창립10주년 기념식

'생명나눔실천본부'

오는 3월 27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창립 10돌을 맞는다. 그간 본부가 벌인 장기기증운동은 자비사상의 사회적 회향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본부의 성장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3월 현재 조직은 2만여 명의 일반회원과 5천 500여 명의 후원회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출범 첫해 469명에 불과하던 장기기증 신청자도 2003년 말 기준 4만925명(누계)에 이르렀으며, 장기이식도 총 484건을 성사시켰다. 또 지난 1998년부터 화장사약운동도 전개해 3만1741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런 공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 2월 11일 대구영남대학교관습사에서 가진 헌혈 기증행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로 본부는 지난해 서울시 NGO지원사업 부분 평가 1위를 차지했다.

본부는 가장형편이 어려운 불우한자 돕기도 펼쳤다. 매달 중병과 경제적 곤란을 겪는 환자 1명을 선정해 현재까지 88명에게 총 4억여 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본부는 출범 10년차를 맞아 4월 9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조계

사 교육관에서 '생명나눔 강좌'를 연다. 창립 10주년 기념식도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해소 사무총장은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백혈병, 재생불량 빈혈 환자 등을 위해 골수기증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현대설법

법회를 세우는 위대한 감동! 설법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프라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협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 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거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겹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부타저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미가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실이나 논문은 더욱더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라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 발송중!